

2014년 12월

Paraguay

Ko, Hyon-Mook P.O.Box 2910, Asunción-Paraguay / E-mail : pablokopy@gmail.com

# Feliz Navidad

## 고현묵 변성희 선교사 선교소식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성탄 인사를 드립니다.

한국에서 땅을 파고 지구를 관통하면 어디가 나올까 하는 것을 이슈로 해서 몇 년 전 아르헨티나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과 논쟁이 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서로 '파라과이'다, '아르헨티나'다 하며 각자가 사역하는 지역이 한국과 관통되는 가장 먼 지역이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어느 분이 '우루과이 앞 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거를 물으니 고등학교 때 배운 '사회과부도'에 나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30년 전 한국을 떠나올 때 추억이 될까 싶어 갖고 온 '사회과부도'를 펼쳐보았더니 우루과이 앞 바다에 빗금으로 그려진 한반도 모양의 표시가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있는 파라과이에서 비행기로 한두 시간 안에 있는 가까운 나라들이라, 어디가 가장 먼가 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떠나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종 들추어내는 에피소드입니다.

지구 둘레의 절반은 약 20,000km가 됩니다. 비록 지리적으로는 지구를 사이에 둔 직선으로 계산해도 2만 km나 되는 '가장 멀리' 위치한 지역이긴 하지만, 한국을 비롯한 지구 북반구의 겨울 추위가 심할수록 이곳의 여름은 반대로 더욱 뜨겁고 뜨겁기만 한 것을 보면 우리가 서로 분리해서는 생각할 수 없는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는 것으로 이 연말의 아쉬움을 달래봅니다. 항상 잊지 않고 기도해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사랑에 힘입어서 그동안도 주의 복음사역에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중 일부를 소식지에 담아 전해드립니다.

### ■ 성경번역 신약 완간 출판 기념행사 ■

**¡¡Dios habla en aché y llega a sus comunidades!!**

하나님께서서는 아체 언어로 말씀하시고 그 부족 공동체에 오셨습니다!!

파라과이에 현존하는 20여개 인디언 부족들 중 최후의 나체 부족이었던 Aché 인디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지 약 50여년이 지난 이제 자신들의 언어로 된 신약성경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번역이 진행되어 온 지난 7년 동안 저의 현지 신학교 후배인 레오나르도 목사에 대한 지원 협력과 멤버십 케어, 신약 각 권의 번역이 끝날 때마다 출판을 위한 감수와 비용 모금 등에 협력해 오던 것이 결실을 맺어서 신약성경의 번역은 물론, 출판까지 마치고 전체 2,000여 부족원들에게 한 권씩 성경을 나눠 주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현지어에 능통해도 욕은 자기 언어로 해야 맛깔스럽다고 하지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이야 더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체 말로 말씀하신다**며 기뻐하는 아체 형제들의 표정을 전합니다.

사진 1)



사진 2)



사진 3)



사진 4)

사진 1) 완역된 신약성경을 들고 감사 기도를 하는 아체 목사님들 / 사진 2) 성경을 나눠주고 있어요!  
사진 3) 감사 축제에서의 활쏘기 행사 / 사진 4) 성경을 읽는 아체 원로들

아체 어(語) 신약성경의 출판을 위해서 여러 기관들에서도 힘을 보탤고 아체 인디언 공동체에서도 힘에 지나는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곳 파라과이에 있는 한인 침례교회의 성도들도 미약한 교세에 자립이 버거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아체 형제들이 자기 말로 된 성경을 갖는 이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 동참을 했습니다.



### ▣ Pepe Semilitas 유치원 종업식 ▣

올해 처음 시작한 Pepe Semilitas, 유치원은 많은 열매들을 가능케 했던 복된 사역이 있었습니다. 우선 불신 가정에서 온 아동들을 통해서 그 중 두 가정이 새로 예수를 영접하고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불화했던 가정이 회복된 경우도 있었고, 무엇보다도 지역사회에 대한 교육 사업으로 인한 교회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아졌다는 것이 큰 소득이었습니다. 문맹 퇴치를 목적으로 시작했던 일이 결과적으로 아동 교육으로까지 이어지고 가정들이 변하고 지역이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면서, 또래 푸에르떼 교회가 학교를 시작해 주기를 원하는 주민들의 요청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신뢰하고 자녀들을 맡길만한 교육기관이 가까운 주변에 없는 까닭에 아동, 청소년들이 고된 장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이 지역에 매년 교실 하나씩만 세운다면 충분히 학교를 시작할 수 있기에 저희의 새로운 소망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지난 8월, 군에 입대한 예찬이는 많은 분들의 기도에 힘입은 주의 은혜로 훈련소를 잘 마치고 자대배치를 받아 열심히 경계근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한강 하류의 초병으로 근무하며 매서운 겨울 강바람과 군 생활에 적응하며 애를 쓰는 아들이 그 환경에 잘 적응하고 보다 성숙해질 수 있도록 날마다 기도하게 됩니다.

11월부터 이미 안팎을 장식하고 있는 반짝이들과 온 길을 짝 매운 차량들과 쇼핑을 하기위해 밖으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모습은, 가만히 있어도 땀이 흐르는 더위를 제외하고는 성탄과 연말을 지나고 있음을 실감케 합니다. 지난 2014년 한해에도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도의 응원과 협력의 헌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역자 여러분들의 삶과 생업과 섬기시는 교회들, 그리고 파라과이 선교에 협력해 주시는 교회들에 주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2015년에도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 **기도제목** 저희의 제목들 중에 몇 가지를 간추렸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1. 또래 푸에르떼 교회

- 1)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피차 순종과 섬김의 마음으로 협력해서 지역 복음화의 임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교회로 견고히 서도록...
- 2) 매년 교실 하나씩을 마련해서 장차 교육 선교의 비전이 결실을 맺도록...

#### 2. 알따르 파밀리아르 교회 (으빠네 쉐뜨로 지역)

- 1) 로메로 목사님이 잘 훈련되고 목양에 집중해서 교회가 건강한 성장을 이루도록...
- 2) 2월 말 부터 시작 예정인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 3. 밀알 선교단 / 처음 구성된 밀알선교단 이사회를 통해 파라과이 장애인을 위한 사역이 보다 견고해지고 재정의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 4. 고선교사 내외가 여러 사역들 중에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고 항상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유지하고, 말씀과 기도 에 깊이를 더 할 수 있도록...

2014년 12월 20일 파라과이 선교사 고현묵 변성희 올림